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브라질의 영원한 음유시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정재민

지난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포크 가수 밥 딜런을 발표하면서 선정 이유를 “위대한 미국 노래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상 밖의 결과를 두고 전 세계 문화계는 찬반양론으로 뜨거워졌다. 문학 본연의 성질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영국 작가 어빈 웰시는 이번 노벨문학상을 “노망나고 횡설수설하는 히피의 썩은 전립선에서 짜낸 노스텔지어에게 주는 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중음악 싱어송라이터에게 돌아간 노벨문학상이야말로 문학의 경계를 넓힌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고급’ 문학으로서의 시, 소설, 희곡만 문학상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영화 시나리오든 노래 가사든 문자로 쓰인 작품이라면 모두 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악마의 시』로 유명한 영국 작가 셸먼 루시디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부터 노래와 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딜런은 음유시인 역사의 찬란한 상속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만약 브라질의 대표적인 음유시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Vinícius de Moraes)가 아직 살아 있다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밥 딜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았을까. 비니시우스는 보사노바의 아버지로 부르는 톰 조빙(Tom Jobim)과 함께 아름답고 서정적인 보사노바 노래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출처: <http://www.contiouttra.com>)

를 많이 만들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사노바라고 할 수 있는 「이파네마의 소녀」(Garota de Ipanema) 역시 최고의 음악적 콤비인 두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했다. 1962년 어느 날, 비니시우스는 통 조빙과 함께 평소처럼 이파네마 해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길모퉁이에 위치한 단골 레스토랑 ‘벨로주’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음악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자석처럼 두 사람의 눈길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긴 머리 소녀. 이 소녀는 레스토랑 옆길을 사뿐사뿐 걸으며 해변을 향하고 있었다. 비니시우스와 통 조빙은 이 아름다운 소녀에게서 받은 영감이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노래를 만들기로 한다. 언제나처럼 비니시우스가 가사를 썼고 통 조빙은 곡을 만들었다.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우아한가
 저 소녀
 달콤한 걸음걸이로
 바다로 향해
 가고 있는
 이파네마의 태양에



이파네마의 소녀 오리지널 악보와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길 표지판(출처: <https://www.flickr.com>)

황금빛으로 그을린 몸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 편의 시 이상
 내가 본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
 아, 난 왜 이토록 외로운가
 아, 세상은 왜 이토록 슬픈가
 아, 존재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네
 지나가는 그녀도 혼자라네
 아, 만약 그녀가 안다면
 그녀가 지나갈 때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이 환희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이렇게 탄생한 「이파네마의 소녀」는 순식간에 퍼져 나가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브라질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 이 노래에 영감을 준 실제 주인공 엘로이자 피네이루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비니시우스와 통 조빙의 단골 레스토랑 벨로주도 덩달아 유명세를 타면서 간판도 ‘이파네마의 소녀’로 바뀌 달았다. 레스토랑 앞길의 도로표지판 이름 역시 나중에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길’로 바뀌었다.

브라질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지 안드라지는 비니시우스를 “가장 시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삶 자체가 시적이라는 말이다.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는 1913년 리우데자네

비니시우스와 조빙(출처: <http://www.ebc.com.br>)

이루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비니시우스는 가끔 시를 쓰는 공무원 아버지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연스레 문학과 음악을 동시에 호흡하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문학적 음악적 재능이 남다르게 일찍부터 발현되기 시작했다. 직접 쓴 희곡 ‘세 번의 사랑’으로 연출한 작품을 학교 무대에 올린 건 불과 11살 때였다. 15살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금발의 소녀 혹은 검은 머리의 소녀」와 「밤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기도 했다. 리우데자네이루 법대에 입학하지만 법 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는 문학의 꿈을 키워나갔다. 1933년에는 첫 시집 『멀리가는 길』을 펴낸 데 이어 2년 뒤 두 번째 시집 『형식과 주석』을 발행한다. 비니시우스의 초기 시들은 주로 종교적이며 신비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인 페헤이라 굴라르는 이 작품들을 “그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서 점차 비니시우스 자신을 찾고 브라질인이 되어가고 있던 시기에 쓰여진 것들”이라고 평한다.

1938년 비니시우스는 영국 정부가 브라질 학생에게 수여한 1호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업을 포기한다. 그곳에서 브라질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 영국 시절 비니시우스는 여인과의 사랑 이외에도 서구문학의 대표적인 정형시 소네트와의 사랑에도 흠뻑 빠진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 자신도 많은 소네트 형식의 시를 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소네트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하지만 이 감옥 안에서만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니시우스는 197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소네트 헌정시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

비니시우스는 1943년 외교관 등용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거쳐 3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브라질 총영사관에 부영사로 부임하면서 외교관 경력을 시작한다. 그 후 파리, 로마 등에서 외교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시, 희곡, 노래 가사를 창작하거나 공연 활동도 계속했다. 비니시우스에게 1950년대는 성공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출간한 『시집』과 역시 같은 해에 펴낸 희곡 『콩세이성의 오르페우스』(Orfeu da Conceição)는 절정에 이른 문학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콩세이성의 오르페우스』는 1958년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영화 「흑인 오르페우스」(원제: Orfeu Negro, 감독: 마르셀 카뮈)로 제작되어 이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1960년 아카데미 외국영화상을 받는 겹경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비니시우스는 이 영화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행복」(A Felicidade)(통조빙 작곡)의 가사를 쓰고 직접 노래도 불렀다.

슬픔은 끝이 없네
 행복은 있지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마치
 카니발의 커다란 환상 같아
 우리는 일 년 내내 일을 하지
 단 한 순간의 꿈을 위해
 분장을 하고
 왕이나 해적이나 정원사가 되지
 모든 게 수요일이면 끝나게 되지



이파네마 해변(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니시우스는 이혼과 결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노랫말 작사와 공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무렵 비니시우스는 도리발 카이미, 바텐 파월, 카를루스 리라, 에두 로부 등 당대의 유명 가수, 뮤지션과 함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보헤미안 같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외교관 비니시우스는 당시 브라질의 권위주의 군사정권에게 눈엣가시였다. 결국, 외교관 행동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1968년 군사정부는 비니시우스를 파면하고 모든 지위와 권리를 박탈한다. 비니시우스가 파면 통보를 받은 곳은 포르투갈 공연 무대 현장이었다. 이후 음악 활동에 전념하는 비니시우스는 1980년 아홉 번째 부인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특히 토우키뉴와 공동으로 수많은 앨범을 발표한다. 사망한 지 18년이 되던 1998년에야 비로소 그는 사면 복권된다. 2010년 브라질 연방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니시우스를 외교관으로서 최고 지위에 해당하는 대사로 특진시킨다.

브라질의 영원한 음유시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삶은 그 자신의 노래 「축복의 삼바」(Samba da benção)의 노랫말처럼 피부는 백인이지만 영혼은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흑인으로 살았는지도 모른다. 음유시인 비

니시우스는 오늘도 노래한다.

슬픈 것보다 기쁜 게 좋아
기쁨은 존재 중 최고
그것은 마치 마음 속의 빛
하지만 삼바를 멋지게 하려면
약간의 슬픔이 필요해
그렇지 않다면 삼바라고 할 수 없어
삼바를 한다는 건 우스갯소리가 아냐
삼바를 한다는 건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냐
좋은 삼바는 기도와 같아
삼바는 움직이는 슬픔이기 때문이야
그건 언제나 희망을 간직한 슬픔이야
언젠가 더 이상 슬프지 않으리라는
케이던스에 사랑을 약간 놓아봐
그럼 이 세상 누구도
삼바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삼바는 바이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삼바가 오늘 시에서 백인이라면
삼바가 오늘 시에서 백인이라면
마음속에선 온전히 흑인이거든.

정재민 — 루소폰문화연구소장